

한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가로쳐야할 시기를 놓치지 말것이며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개성으로 취급해야 하며 더욱이 어린이를 위협해서는 않되겠습니다.

〈필자=한일병원 소아과장 · 의박〉

토막뉴스

檢便사업 활발히 전개

—서울지부 10월25일 35만명—

기협 서울시지부는 추계학도겸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0월25일 현재 350,000명을 검사완료했으며 앞으로의 검사예상인원을 약 62만명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총 예상인원 70만 2천명 중 62만명은 88.3%에 달하는 숫자이다.

76년도 제18회 대한기생충학회 학술대회

11월 6일, 중앙의대에서

76년도 대한기생충학회 제18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중앙의대 2층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1월 6일(土) 오전 9시에 개최된 동학술대회는 35개의 학술보고와 16개의 지상발표, 강연토론회 등이 있었다.



학동기의 발육과 건강관리

朴 鍾 茂

학동기 아동의 발육과 건강관리의 특징

소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새없이 몸과 마음과 재능등의 성장 발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아기→영아기→유아기를 거쳐 학동기에 이르면 신체적 발육은 물론, 운동기능 체력이 눈부시게 발달되어가며 환경의 변화와 배움을 통한 정서적 발달과 지능발달등의 정신기능의 발달이 매우 활발해지는것이 특징

● 특집

적이다. 지금까지 가정에서만 자라나고 배우는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며 사회와 학교환경에서 많은 벗(동료)과 성인들을 대하는 가운데 사회성의 발달과 인격이 달라져 (갖추어져)간다. 따라서 학동기는 어린이의 성장발육, 영양개선 체위향상, 인격도야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들은 교사(教師)와 교의(校醫)와 더불어 협력하여 올바른 성장발육 전강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학동의 성장발육

ㄱ) 신체발육 : 신장(키)와 체중(무게)이 계속하여 증가되는 중국 민교자학년의 학동의 신장은 1년에 약 2cm(센티)씩, 체중은 약 2kg(키로그램)씩 증가되어 간다. 남자(남아)의 경우 2~15세에 여자(여아)의 경우 10~13세에 이르면 사춘기에 들어가는 나이(年齢)에 이르러 성적성숙기를 맞이하게되면 성장발육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때에는 신장은 1년에 약 7cm씩, 체중은 3kg씩이나 증가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우위를 차지하지 만 다만 12세를 전후한 사춘기 초기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체중신장의 발육에 있어 앞서고 있다.

ㄴ) 정신발달 : 신체발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발달, 성격, 정서(情緒) 행동의 발달이며, 지능

발달에 따라 이와 같은 정서, 사회성, 도덕성의 문화 발달이 이루어 진다. 부모들은 교사와 더불어 학교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정서적발달, 지능발달(주의력, 기억력, 사고력)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강관리

학동(아동)의 건강관리의 초점은

- ① 성장발육의 평가와 촉진
- ② 왕성한 발육과 활발한 운동을 뒷받침 할수 있는 영양의 개선
- ③ 학동에 흔한 학교전염병(감염)의 예방.
- ④ 사고방지 및 안전교육.
- ⑤ 충치예방, 구강위생지도.
- ⑥ 환경개선(학교)과 학교생활지도.
- ⑦ 학동의 난령에 맞는 체육과 퍼크리에이션 등에 중점적으로 치중 관리하는 것이다.

① 정기적 발육평가와 발달진단을 받을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체중, 신장을 계측하여 난령별 발육지수(갈루지수, 토-렐지수)를 표준치와 비교평가함으로 발육해가는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의사의 형식적인 진단(신체검사)보다 더욱 중요하다. 아동(학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신, 행동의 발달상태를 알아야 하며 전문가의 지능발달지수

겸사, 행동진단(성격과 행동의 특징을 살피는)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영양관리 개선 : 빠른발육과 활발한 운동을 뒷받침하기에는 영양요구는 매우 크다. 학등은 아침식사, 점심(도시락)식사등 자칫하면 식사가 단조롭고 소홀하여져 영양공급의 부족해지기 쉽다. 가정에 있어서 각종영양소별로 다섯 가지 기본식품으로 잘 조화된 식사를 마련하고, 특히 편식을 삼가도록 식사습관을 잘들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 있어서 회식을 통한 영양교육과 학교급식 제도를 통한 영양보충, 개선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한다.

(3) 감염, 발병예방에 힘써야 한다. 디푸페리아, 백일해, 포레오(소아마비), 볼거티(멈푸스), 결핵, 뇌염, 인후렌자 등 학동기에 흔한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은 잊지 말고, 계속되어야 하며, 질병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위생적 학교생활에 힘쓰도록 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격리 조기치료에 응하도록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4) 충치예방과 구강위생 : 점차로 늘어가는 충치의 예방에 노력하도록 영구치료 바구기전에 치과의사의 치료와 지도를 받아 예방과 교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를 잘 막는 습관과 자주 양치하는 구강위

생에 유의하여 호흡기 계통의 감염 예방에 힘쓸 것이다.

(5) 사고방지, 안전교육 : 사고발생이 가장 흔한 학동기에는 교통사고, 운동사고, 익사사고등……에 대한 사고방지, 구급조치에 관한 교육훈련, 위험한 행동의 금지, 응급치료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6)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 학동연령에 알맞는 학교일파(프로그램)와 더불어 신체발육과 운동기능을 촉진시키기위한 알맞는 체육을 실천 토록하며, 적절한 휴식과 소창을 위한 오락, 레크레이션의 프로그램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 환경개선과 생활지도 : 학교나 가정이나 청결, 의복, 운동, 식사 등 생활활동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규칙적이면서도 위생적이며 안전성이 있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성한 환경의 조성은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있어 기본적 조건이다.

<필자=한양의대 소아과 교수·의박>

● 기생충 박멸표어

새마을 건설은 기생충구제부터

한국기생충박멸협회